

# 전남 국비 9조원 시대... 첨단 전략·에너지 사업 동력 확보

### 올해보다 4230억 증가... 정부 건축재정 기조 속 역대 최고액 반영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호남고속철 2단계 등 SOC 현안 예산도 확보

전남도가 '국비 9조원 시대'를 맞았다.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남도 직원들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찾을 때마다 품고 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했던 20개 핵심 현안 사업 대부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9조 75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8조 6525억 원)보다 4230억 원(4.9%)이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국비 9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또 지난 9월 정부 예산안(8조 6021억)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당위성을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47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 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핵심 현안(20건) 중 19건을 포함한 1612억원(110건)을 확보. 향후 전남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첨단 전략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의 첫 발을 댄다는 의미가 크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연구용역(3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용역(화순·5억),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조사(장성·3억3000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클러스터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여수·5억), 향토음식진흥원센터 시설설계용역(목포·5억5000만),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출연금(167억)의 추가 확보(33억), 석유화학산업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여수·25억),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시설·부대비(나주·25억

2000만), 역사문화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비(나주·해남, 9억), e 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업지원 시설설계·공사비(영광·20억), 친환경 유기농산업을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설계비(해남·3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완도·2억) 등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게 꼽힌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전남이 감정을 보유한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오랜 현안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100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4840억 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2056억), 여

수 화대·백야 도로 공사(685억), 벌교·순천 주암국도 27호선 확장공사(378억)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보했다.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과 노라마 관광명소(6억),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5억) 등 33개 사업(111억)이 반영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 오는 2025년도 국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으뜸 청년친화도시를 향하여"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 전남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력

### 선정시 국비 100억원 지원... 공모과제 발굴 등 나서기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과 관련 최대 1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내년 3월 초와 7월 말 선정되고,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규모 예산만 아니라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도 제공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돌

봄부터 취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담팀을 구성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 발굴,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2024년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중심 돌봄형, 지역산업 연계형, 혁신도시 연계형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계획 발표 이후 관심 시·군을 파악해 추진 방향

을 협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돌봄교육반, 지역산업반, 혁신도시반 등 약 4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육발전특구추진단(TF)을 구성해 시·군별 제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라이즈(RISE)사업, 글로벌대학30, 교육발전특구 3중세트로 전남 교육의 획기적 변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전남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상무교차로 연결로 다음달 확장 개통

### 1개→2개 차로로 포장... 차량 정체·교통 불편 개선

광주시는 "내년 1월 상습 교통 혼잡구간인 상무교차로의 차량 정체 완화를 위해 진출입 연결로를 확장·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진대로 상무교차로는 무진대로 통행 차량과 수완지구 방면 진출입 차량 등이 겹치는 상습 교통 혼잡 구간으로 꼽힌다.

특히 수완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입하는 연결로가 1개 차로에 불과한 탓에 출퇴근 때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도로다.

이번 상무교차로 확장은 광주공항 외곽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으며, 진출입 연결로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했다. 현재 마무리 포장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초 완료 후 중순 개통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무교차로가 확장 개통되면 차량 정체와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저소득층 5306명에 수산물 꾸러미

전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5000여명에게 굴비, 전복, 김 등 전남의 수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 가정에서 요리하기 편한 대중적 수산물인 굴비, 자숙 전복, 김, 미역, 자반 등 5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록을 둔 자활 참여자,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 주간 보호시

설 이용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자 등 5306명이며, 27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연말연시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며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도 챙기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도 어가 소득도 향상되는 일석이조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북구, 비상대비훈련 유공 '국무총리상'

광주시 북구가 전국 69개 특·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전시 안보 태세와 비상대비 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로 선정됐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북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는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을지연습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사전 직원교육 ▲전시 통합상황 조치모델 전면 개편 ▲주민 대상 적극적인 안보 홍보 ▲민·관·군·경의 체계적인 협업 실천 연습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올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는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